

# 제주지역 이중방언사용(Bidialectalism)과 영어습득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조사\*

신창원\*\*

- I. 서론
- II. 문헌연구
- III. 연구방법
- IV. 설문결과 및 분석
- V.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 영어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음 영역을 제외하고 억양, 어휘, 말하기, 듣기, 읽기에 걸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측면 또한 억양 및 말하기라고 선택하였다. 또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그룹 중에서 자신의 영어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인원이 다른 그룹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대부분 제주방언의 사용능력보다는 표준어 능력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영어교육과 조교수.

이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동등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긍정·부정·중립 그룹 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 및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이중방언사용(bidialectalism), 영어학습, 제주방언, 표준어.

## I. 서론

우리나라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방언사용의 양상을 보이는데 제주방언<sup>1)</sup>과 표준어가 함께 사용되는 소위 이중방언사용(bidialectal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방언과 표준어가 상황에 따라서 한 화자에 의해 선택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며 특히 언어습득의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표준어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표준어의 발음, 억양, 어휘 등을 습득한 후에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 두 개의 방언을 선택하여 구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역 방언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내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언급한 문헌으로 유철인(1986)과 이정민(1981)이 있으며, 강윤희(1994)는 이러한 부호전환(code-switching)이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하여 실증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이러한 방언 간 습득(즉, 제주방언 사용자가 표준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외국어 학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중언어사용(bilingualism) 혹은 외

1) 현재는 '제주방언' 보다는 '제주어' 혹은 '제주말'로 통용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이중방언사용(bidialectalism)'의 관점에서 용어상의 혼란이 없도록 '제주방언'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주어'를 한국어의 방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국어와는 독립적인 언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특정입장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아울러 '표준어'와 '제주방언'란 용어도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한국어의 두 변이형(variety)이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국어학습이 또 다른 외국어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송지희, 2014; Balla, 2013; Cenoz, 2003; Sanz, 2000), 이와 유사한 이중방언사용 또한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방언 간 습득과 언어 간 습득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 제주방언이 보이는 표준방언과의 어휘 및 문법 간의 상이성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은 사실상 이중 언어 사용 현상처럼 어느 정도 외국어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와 외국어사이의 교체사용이 아닌 한 언어 내에서 두 가지 방언이 교체되어 사용되는 현상이 영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이중방언사용을 보이는 제주지역 화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제주지역에서 보이는 이중방언사용 현상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제주지역 영어학습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향후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향후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한 관련 문헌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 (1) 제주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
- (2) 제주와 유사한 언어사용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 (3)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로서 제주지역 외국어 학습자와 타 지역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습득 현상을 비교한 연구.

첫 번째로, 제주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보

면 강운희(1994)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주방언과 표준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 및 요인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두 방언간의 교체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정체성('제주' 대 '육지'), 상황의 공식성, 친밀도,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제주방언의 경우 제주사람과의 대화, 비공식적 상황, 친밀한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표준어의 경우 각각 반대되는 상황인 육지사람, 공식적 상황, 친밀하지 않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의 이중방언사용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이정민, 1981; 유철인, 1986) 또한 이러한 제주지역 내 방언사용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두 방언의 교체 사용 현상이 영어 학습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주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제주와 유사한 언어사용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보면, Rahbar(2013)와 Yiakoumettiab & Minab(2011)이 있는데, 먼저, Rahbar(2013)<sup>2)</sup>의 경우 이중방언사용 현상과 영어발음 습득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어인 Standard Persian 만 사용하는 테헤란(Tehran)지역 영어학습자보다 지역 방언인 Guilaki와 Standard Persian을 함께 사용하는 라쉬트(Rash)지역 영어학습자의 영어발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정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지역 방언인 Guilaki에는 영어와 유사한 분절음(segments)이 있는데 반해서, 표준어인 Standard Persian에는 영어와 유사한 분절음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Yiakoumettiab & Minab(2011)의 경우 오히려 이중방언사용이 외국어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 그리스어(Modern Standard Greek)와 키프로스 방언

2) Rahbar(2013)의 경우 연구방법론상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실험 결과가 정확히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주지역과 유사한 방언사용의 양상을 바탕으로 외국어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중요성보다는 연구가 이루어진 언어사용 맥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Greek Cypriot dialect)이 교체하여 사용되는 키프러스의 한 지역에서 영어교사가 키프러스 방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학습자의 영어 수동형(passive forms) 습득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또한 언어 간(키프러스 방언과 영어) 간섭(interference) 혹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의 입장에서 키프러스 방언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요소가 영어 수동형 습득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두 연구는 지역 방언이 학습하고 있는 외국어의 해당 영역 - 분절음 발음 혹은 수동형 - 과 같거나 다르기 때문에 이를 습득하는데 유리하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소위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Lado 1957)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반면에 Kouridou(2009) 또한 키프러스를 배경으로 영어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하였는데 영어교사가 표준그리스어와 함께 키프러스 방언을 함께 사용하여 영어를 가르쳤을 때, 표준그리스어를 사용한 경우보다 영어구술능력, 받아쓰기, 영어쓰기에서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Yiakoumettiab & Minab(2011)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 가지 방언이 아닌 두 가지 방언을 사용한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비교·대조 전략의 관점에서 상위언어능력(metalinguistic ability)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방언사용이 외국어 학습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키프러스를 배경으로 한 Papapavlou & Phili(2009)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중방언사용이 아이들의 상위언어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으로 제주와 유사한 언어사용 현상, 즉 이중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의 영어 학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바라볼 경우 다소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Rahbar(2013)와 Yiakoumettiab & Minab(2011)), 이중방언 사용자의 인지발달 혹은 상위언어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보이는 다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중방언 사용자에게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로서 제주지역 영어학습자와 타 지역 영어학습자의 언어습득 현상을 비교한 연구로 서미석(2011)의 연구가

있다. 이는 지역 방언이 존재하지만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보이지 않는 대구지역의 영어학습자와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보이는 제주지역 영어학습자의 영어모음 발음 능력을 비교한 연구인데 대구나 제주 출신 영어학습자 모두 원어문의 영어모음과는 다른 모음을 발음하였으며 오히려 제주 출신 영어학습자의 영어모음 발음에 모국어의 간섭이 더 많이 있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두 방언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어휘, 발음/억양, 문법규칙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다른 외국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더욱이 앞서 두 번째 관련 연구에서처럼, 서미석(2011)의 연구 또한 분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역 방언이 줄 수 있는 언어 간 간섭 현상에서만 외국어 습득을 이해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 살펴본 관련연구는 이중방언사용 현상이 외국어 학습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음운 혹은 통사 단계에서 외국어 습득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고 이를 해당 외국어와 학습자의 방언 혹은 표준어와 비교·대조하면서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와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의 관점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Kouridou(2009) 혹은 Papapavlou & Philil(2009)처럼 언어학습과정의 차원에서 이중방언사용과 외국어 습득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방언 - 지역 방언과 표준어 - 이 갖는 언어적 특성이 외국어 학습에 주는 영향이 아님 두 가지 방언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표준어가 사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표준어를 학습하였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점이 어떻게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좀 더 구체화한다면, 한 언어 내 두 가지 방언을 상황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Canale & Swain, 1980)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표준어 발음 혹은 어휘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과정은 L2 학습 전략(L2 learning strategy)과 연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이중방언사용 혹은 표준어 습득 과정을 통해서 사회언어적 능력 혹은 L2

학습전략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외국어 습득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주로 영어 관련 전공을 하는 제주지역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 능력과 외국어로서 영어 학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연령, 전공, 출생 및 성장한 곳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대학생 나이, 전공, 출생지 및 성장한 곳

참여대상자	대학생 40명
평 균나이	23.05세 (20세 - 30세)
대학전공	영어교육 34명 윤리교육 3명 (영어교육 부전공) 컴퓨터교육 2명 (영어교육 부전공) 국어국문학 1명
출생지	제주 38명 · 인천 1명 · 서울 1명
성장한 곳	제주 40명
학교교육을 받은 곳	제주 40명

이중방언사용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실제 경험 및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영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출생지의 경우 2명 인천/서울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성장하거나 학교 교육을 받은 곳은 제주이므로 모든 참여자가 사실상 이중방언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었다. 사용된 설문지(부록 참조)의 경우는 제주방언과 표준어를 교체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 및 요인, 제주방언과 표준어를 습득한 환경 및 본인이 인식하는 표준어 및 제주방언 능력, 그리고 이중방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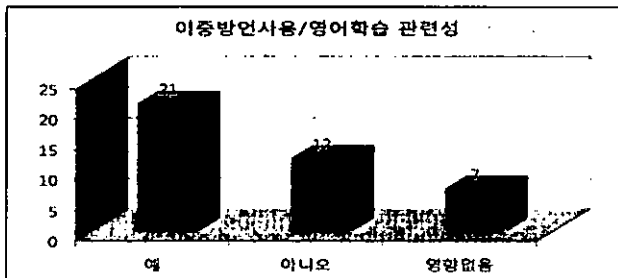
용이 영어습득에 도움 혹은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도움 혹은 방해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질문하였다. 특히 제주방언과 표준어를 교체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의 경우는 강윤희(1994)의 연구결과, 즉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경우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결과는 주로 빈도분석을 통해서 각 설문문항의 대답을 선택한 수와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필요에 따라서 변인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혹은 일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였다.

#### IV. 설문결과 및 분석

##### 1.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을 보면 <그림 1>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21명(52.5%)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12명(30.0%),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의견이 7명(17.5%)으로 나왔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인원 중 반 정도는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1>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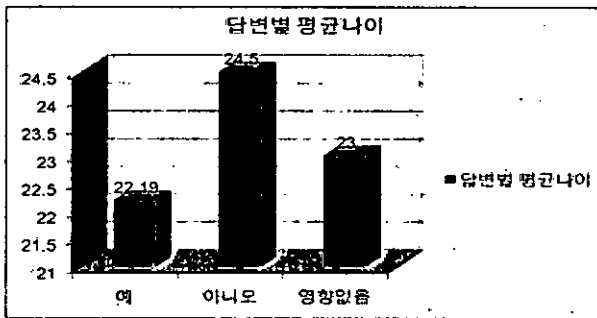
또한 영향이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긍정 혹은 부정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언어기능 혹은 영역별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세부 언어기능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언어기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언어기능
발 음	2.9% (1)	0.0% (0)
억 양	17.6% (6)	53.8% (7)
어 휘	14.7% (5)	7.7% (1)
말하기	23.5% (8)	23.1% (3)
듣 기	14.7% (5)	0.0% (0)
쓰 기	5.9% (2)	7.7% (1)
읽 기	17.6% (6)	0.0% (0)
기 타	2.9% (1)	7.7% (1)
	100.0%(34)	100.0%(13)

<표 2>를 보면,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말하기(23.5%)를 포함하여 대부분 영역에서 이중방언사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택한 반면에 부정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는 특히 억양(53.8%)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발음, 듣기, 읽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선택하였다. 특히, 억양 및 말하기 영역의 경우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 모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발음 영역의 경우 이중방언사용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모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빈도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발음보다는 억양 영역에서만 이중방언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어 학습에서 발음과 억양은 상당히 밀접하거나 유사한 습득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중 하나는 대부분이 20대임에도 상대적으로 20대 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그 관련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20대 중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중립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답변별로 평균 연령(22.2 vs. 24.5)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t-test를 통해서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p=0.010$ ). 따라서 향후 더 다양한 연령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서 연령대별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2〉 답변별 평균나이

## 2. 제주방언/표준어 사용 및 습득 과정

이번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강윤희(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어와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복수의 답변을 하도록 하였을 때 각각 <표 3>과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표 3>에 나타난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응답자 모두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고르게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발표 혹은 어른께 말씀드릴 때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윤희(1994)는 지역적 정체성이 표준어와 제주방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는 다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공식성 혹은 비공식성보다는 육지사람인가, 제

주사람인가가 이중방언사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결과는 강윤희(1994)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차이별(긍정 혹은 부정)로 보더라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별 분포 양상은 전체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든 부정적인 입장이든 각 상황별 분포 비율이 유사하며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

	긍정 %(선택수)	부정 %(선택수)	중립 %(선택수)	합
육지 사람에게	18.8% (9)	25.0% (5)	27.8% (5)	22.1% (19)
공식적인 상황에서	35.4% (17)	45.0% (9)	27.8% (5)	36.0% (31)
친밀하지 않은 사람	18.8% (9)	10.0% (2)	27.8% (5)	18.6% (16)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20.8% (10)	20.0% (4)	16.7% (3)	19.8% (17)
기타	6.3% (3)	0.0% (0)	0.0% (0)	3.5% (3)
	100.0% (48)	100.0% (20)	100.0% (18)	100.0% (86)

이와 유사하게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문항에서도 앞서 표 준어 사용 상황에서처럼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황별로 유사한 비율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친밀한 사람에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주사람, 비공식적인 상황 등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표 4〉 참조).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 한 점은 표준어 사용이든 제주방언 사용이든 중립적인 의견, 즉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긍정 혹은 부정적인 그룹과는 다소 다른 비율의 상황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 혹은 부정적인 그룹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중립적인 그룹에서는 그러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비록 전

채용답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상황

	긍정 %(선택수)	부정 %(선택수)	중립 %(선택수)	합
제주 사람에게	28.3% (13)	23.1% (6)	23.8% (5)	25.8% (24)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15.2% (7)	15.4% (4)	28.6% (6)	18.3% (17)
친밀한 사람에게	43.5% (20)	46.2% (12)	33.3% (7)	41.9% (39)
상대방과의 지위관계가 강조되지 않는 상황	8.7% (4)	7.7% (2)	4.7% (1)	7.5% (7)
청자의 지위가 낮을 때	4.3% (2)	3.8% (1)	9.5% (2)	5.4% (5)
기 타	0.0% (0)	3.8% (1)	0.0% (0)	1.1% (1)
	100.0% (46)	100.0% (26)	100.0% (21)	100.0% (93)

다음으로 <표 5>와 <표 6>은 제주방언 및 표준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제주방언의 습득은 주로 부모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료 간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다고 답변하였다 (총 6명중 5명). 기타 의견 중에는 자라온 환경, 조부모, 친척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조모부의 경우는 제주방언 습득을 위한 주요 교수자임을 알 수 있다.<sup>3)</sup> 각 항목별 분포비율은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상관없이 즉, 그 관련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제주어 습득과정과 관련된 질문의 선택문항에 조부모로부터 습득했다는 것이 없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주요 습득요인 중 하나를 누락시켰다는 측면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제주방언 습득 과정

	긍정 %(선택수)	부정 %(선택수)	중립 %(선택수)	합
부모로부터	57.1% (20)	64.7% (11)	38.5% (5)	55.4% (36)
학교교육을 통해서	8.6% (3)	5.9% (1)	15.4% (2)	9.2% (6)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0.0% (0)	0.0% (0)	7.7% (1)	1.5% (1)
동료로부터	20.0% (7)	29.4% (5)	30.8% (4)	24.6% (16)
기타	14.3% (5)	0.0% (0)	7.7% (1)	9.2% (6)
	100.0% (35)	100.0% (17)	100.0% (13)	100.0% (65)

반면에 표준어 습득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습득했다는 의견(20.8%)도 적지 않게 나왔다. 학교교육도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교과서로부터’로 좀 더 세분화하여 물었을 때 이에 대해 답변한 응답자 14명중에 1명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고 응답하고 ‘교과서로부터’ 습득했다는 인원이 9명, 둘 다 선택한 인원은 4명이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경우도 선생님보다는 주로 교과서를 통해 표준어가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 습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 혹은 부정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유사한 비율로 각각의 습득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관련성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낸 응답자 중에는 비율상 기타 의견이 많은 편인데 ‘군대에서’ 혹은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6〉 표준어 습득 과정

	긍정 %(선택수)	부정 %(선택수)	중립 %(선택수)	합
부모로부터	22.0% (9)	18.8% (3)	20.0% (3)	20.8% (15)
학교교육을 통해서	39.0% (16)	50.0% (8)	26.7% (4)	38.9% (28)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29.3% (12)	25.0% (4)	20.0% (3)	26.4% (19)
동료로부터	7.3% (3)	2.4% (1)	6.7% (1)	6.9% (5)

기타	2.4% (1)	0.0% (0)	26.7% (4)	6.9% (5)
	100.0% (41)	100.0% (16)	100.0% (15)	100.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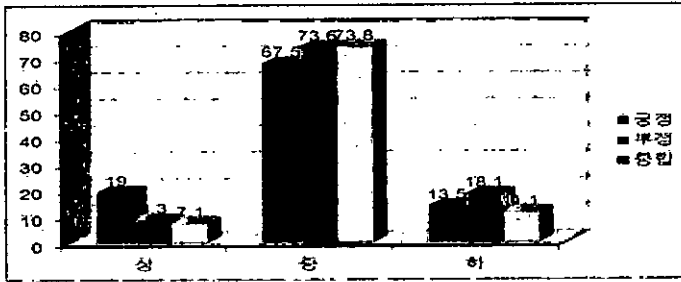
### 3. 관련성 인식에 따른 영어능력 인식의 차이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 간 언어기능별로 인식하는 영어능력을 보면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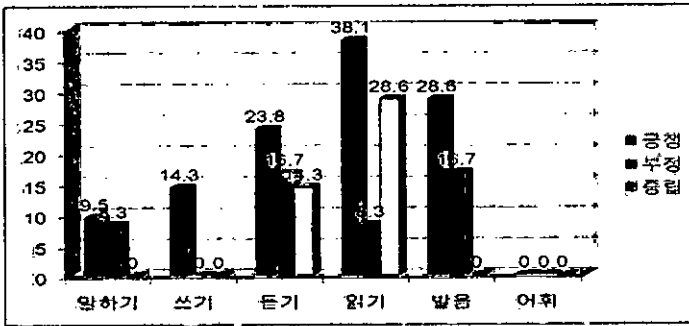
<표 7> 답변별 영어능력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답변			부정적인 답변			중립적인 답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말하기	9.5% (2)	76.2% (16)	14.3% (3)	8.3% (1)	75.0% (9)	16.7% (2)	0.0% (0)	57.1% (4)	42.9% (3)
쓰기	14.3% (3)	66.7% (14)	19.0% (4)	0.0% (0)	66.7% (8)	33.3% (4)	0.0% (0)	85.7% (6)	14.3% (1)
듣기	23.8% (5)	66.7% (14)	9.5% (2)	16.7% (2)	66.7% (8)	16.7% (2)	14.3% (1)	85.7% (6)	0.0% (0)
읽기	38.1% (8)	61.9% (13)	0.0% (0)	8.3% (1)	83.3% (10)	8.3% (1)	28.6% (2)	71.4% (5)	0.0% (0)
발음	28.6% (6)	52.4% (11)	19.0% (4)	16.7% (2)	58.3% (7)	25.0% (3)	0.0% (0)	71.4% (5)	28.6% (2)
어휘	0.0% (0)	81.0% (17)	19.0% (4)	0.0% (0)	96.7% (11)	8.3% (1)	0.0% (0)	71.4% (5)	28.6% (2)
	19.0% (24)	67.5% (85)	13.5% (17)	8.3% (6)	73.6% (53)	18.1% (13)	7.1% (3)	73.8% (31)	11.1% (8)

<표 7>에서 보이는 분포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도 관련성에 대한 인식에 상관없이 각 언어기능에 대해 '중'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다는 점(<그림 3> 참조)인데 이 점만으로는 주목할 만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스로 인식하는 언어기능별 능력(상·중·하)에 따라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각 언어기능별로 '상'을 선택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자가 평가에 의한 영어능력별 긍정, 부정, 중립적인 인식의 분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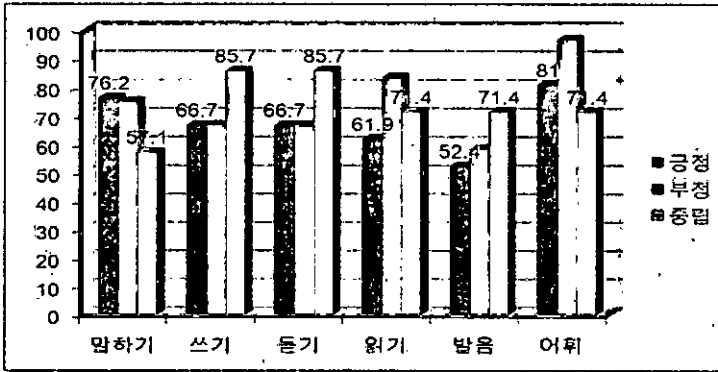


〈그림 4〉 영어능력 '상' 응답자의 대답별 분포

언어기능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영어능력에 있어서 '상'으로 표시한 응답자들의 관련성 인식에 대한 분포를 보면(〈그림 4〉 참조), 이중방언 사용과 영어 학습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중이 다른 경우 - 부정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 - 보다 많은 편이다(〈표 7〉 함께 참조). 특히, 쓰기, 듣기, 읽기, 발음 영역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 중에 자신의 영어능력을 '상'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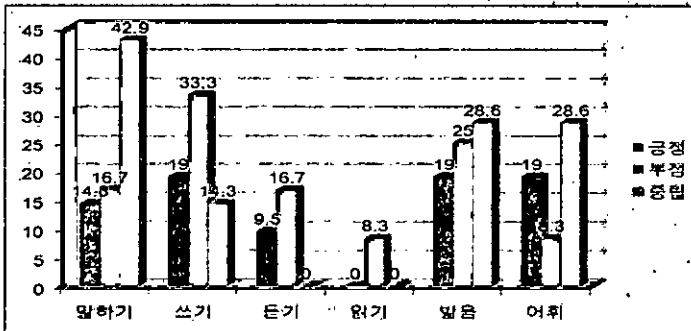
한편 언어기능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영어능력 수준을 '중'으로 표시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그림 5〉 참조),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응답자가 말하기 영역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

다. 다시 말해서 영어말하기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기능에 대해서 자신이 중간정도의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이중방언사용과 영어습득의 관련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림 5〉 영어능력 '중' 응답자의 대담별 분포

마지막으로 언어기능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영어능력에 있어서 '하'로 표시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그림 6〉 참조),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말하기에서는 중립, 쓰기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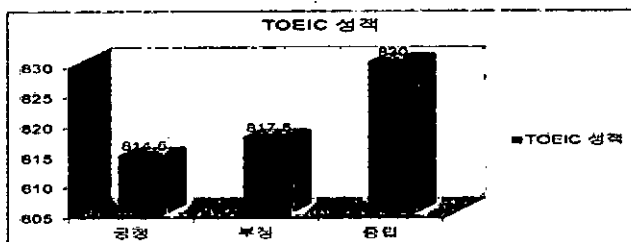


〈그림 6〉 영어능력 '하' 응답자의 대담별 분포



결론적으로 언어기능별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상'으로 인식한 응답자 중에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많고 '중'으로 여기는 응답자 중에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답변을 한 경우가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하'를 표시한 응답자 또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는 자가 평가에 의한 영어능력에 따라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영어능력도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TOEIC 점수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그림 7>과 같다.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TOEIC 점수가 그렇지 않거나 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응답자들의 TOEIC 점수보다 실제로 더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대답별로 TOEIC 성적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변량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확률이 0.955로 사실상 대답별 TOEIC 점수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도 긍정적인 입장의 응답자와 비교해서 공인영어시험 성적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더 많은 응답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영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학생들로 사실상 영어능력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되어 있으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7> 긍정, 부정, 중립 그룹별 토익점수 평균

4. 관련성 인식에 따른 제주방언/표준어 구사능력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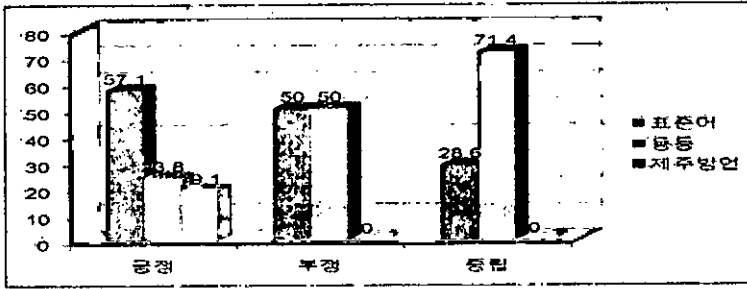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별로 스스로 생각하는 표준어 혹은 제주방언 사용능력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대담별 제주방언 표준어 사용능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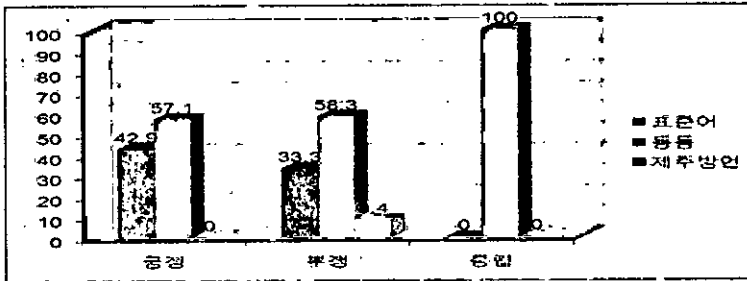
	긍정 그룹			부정 그룹			중립 그룹		
	표준어 우위 <sup>4)</sup>	동등	제주어 우위	표준어 우위	동등	제주어 우위	표준어 우위	동등	제주어 우위
어휘/표현	57.1% (12)	23.8% (5)	19.1% (4)	50.0% (6)	50.0% (6)	0.0% (0)	28.6% (2)	71.4% (5)	0.0% (0)
발음/억양	42.9% (9)	57.1% (12)	0.0% (0)	33.3% (4)	58.3% (7)	8.4% (1)	0.0% (0)	100.0% (7)	0.0% (0)

응답자 스스로 인식하는 표준어 및 제주방언의 사용 능력을 대담유형별로 살펴보면(<그림 8, 9> 참조), 우선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는 어휘/표현에 있어서는 표준어 능력이 우위에 있고 발음/억양에 있어서는 상호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부정적으로 대답한 경우는 어휘/표현에 있어서 표준어가 우위에 있거나 동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발음/억양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끝으로 중립적인 응답자의 경우도 모두 두 방언의 사용능력이 동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식은 대담유형에 상관없이 제주방언 구사능력이 어휘/표현 혹은 발음/억양의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표준어 사용능력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응답자들이 자신의 제주방언 구사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설문문항에서는 주어진 영역별(어휘/표현 혹은 발음/억양)로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사용능력에 대한 상호비교를 직접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다. 다만 상·중·하를 기준으로 주어진 영역별로 자가 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논의의 편의상 표준어가 한 단계라도 높으면 표준어 우위로 제주방언이 한 단계라도 높으면 제주방언 우위 그리고 같으면 동등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8> 어휘/표현의 측면에서 대담별 표준어/제주방언 구사능력 인식



<그림 9> 발음/억양의 측면에서 대담별 표준어/제주방언 구사능력 인식

하지만 표준어를 우위에 두느냐 혹은 제주방언과 동등하게 인식하는지는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담별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중립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 중에 표준어와 제주방언 구사 능력이 동등하다고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많은 편이다.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도 동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에 적어도 어휘나 표현에 있어서는 표준어 구사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음과 억양에 있어서는 두 방언의 구사능력을 동등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기

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영어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관련문헌의 경우, 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 제주지역과 유사한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을 다룬 연구,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주지역 영어학습자의 영어습득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관련성 측면에서 다소간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언어적인 관점이 아닌 언어학습과정 및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중방언사용이 외국어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방언사용과 외국어학습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좀 더 나아가 발음 영역을 제외하고 억양, 어휘, 말하기, 듣기, 읽기에 걸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측면 또한 억양 및 말하기라고 주로 선택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언어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그룹 중에서 자신의 언어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인원이 다른 그룹보다 많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긍정적 그룹의 실제 영어능력이 더 뛰어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점은 영어능력별로 더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대부분 제주방언의 사용능력보다는 표준어 능력이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동등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긍정·부정·중립 그룹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관련문헌 연구 및 이중방언 사용자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국어학습 능력 혹은 성과에 기반을 둔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되거나 보완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포함한 더 많은 이중방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나이에 따른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하거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영어실력의 차이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좀 더 다양한 계층, 연령대, 외국어 능력을 보이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제주방언 및 표준어의 사용상황과 습득과정 그리고 제주방언 및 표준어 능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방언 습득과정에 조부모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방언 및 표준어 구사능력에 대한 자가 평가 시 이해부분(듣기/읽기)과 사용부분(말하기/쓰기)을 구분하여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어 학습전략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제주지역 이중방언 사용자에게 두드러지는 외국어학습전략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것이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언어능력 - 표준어, 제주어, 영어 -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어, 표준어, 영어 모두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이중방언사용의 실제 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이중언어사용 혹은 이중방언사용이 상위언어능력의 측면에서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는데(송지희, 2014; Balla, 2013; Cenoz, 2003; Papapavlou & Phili, 2009; Sanz, 2000) 이와 같은 주장이 제주지역 이중방언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학생과 서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상위언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부록】**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 관련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기초 조사	
나이:	_____
직업:	_____
교육정도:	_____ 전공: _____
태어난 곳:	_____
성장한 곳:	_____
학교교육을 받은 곳:	_____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	부 _____ 모 _____
부모님이 성장한 곳:	부 _____ 모 _____
부모님이 학교교육을 받은 곳:	부 _____ 모 _____
부모님의 교육정도:	부 _____ 모 _____

본인의 영어능력

	상	중	하
말하기			
쓰 기			
듣 기			
읽 기			
발 음			
어 휘			

공인 영어 성적: (TOEIC / TOEFL / TEPS / 기타 \_\_\_\_\_) 점수 \_\_\_\_\_

- 표준어 습득/학습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부모로부터
  - 학교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의 표준어 사용 \_\_\_\_\_ /교과서 \_\_\_\_\_)
  -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 동료로부터

(5) 기타 \_\_\_\_\_

2.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제 표준어를 주로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 육지사람에게           (2) 공식적인 상황에게 (구체적으로 \_\_\_\_\_)  
 (3) 친밀하지 않은 사람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5) 기타 \_\_\_\_\_

3. 제주어 습득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 부모로부터  
 (2) 학교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의 제주어 사용 \_\_\_\_\_ /교과서 \_\_\_\_\_)  
 (3)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4) 동료로부터           5) 기타 \_\_\_\_\_

4.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제 주로 제주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1) 제주사람에게  
 (2) 비공식적인 상황 (구체적으로 \_\_\_\_\_)  
 (3) 친밀한 사람에게  
 (4) 상대방과의 지위관계가 강조되지 않는 상황  
 (5) 청자의 지위가 낮을 때  
 (6) 기타 \_\_\_\_\_

5. 본인이 생각하는 제주어 능력은?

어휘/표현	상	중	하
발음/억양	상	중	하

6. 본인이 생각하는 표준어 능력은?

어휘/표현	상	중	하
발음/억양	상	중	하

7.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제주어와 표준어를 교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7.1. 만약 위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1) 발음            (2) 억양            (3) 어휘            (4) 말하기
- (5) 듣기            (6) 쓰기            (7) 읽기
- (8) 기타 \_\_\_\_\_

7.2. 만약 위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1) 발음            (2) 억양            (3) 어휘            (4) 말하기
- (5) 듣기            (6) 쓰기            (7) 읽기
- (8) 기타 \_\_\_\_\_



## 참고문헌

- 강윤희,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濟州道研究』 11, 1994.
- 서미석, 「한국어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모음 발화에 나타난 음향음성학적 특성 : 대구방언과 제주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송지희, 「이중언어 사용자의 제3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유철인, 「제주도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 1986.
- 이정민,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1981.
- Balla, A. T., "The perceived role of L2 English in the process of learning L3 German", *Romani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10, 2013.
-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980.
- Cenoz, J., "The additive effect of bilingualism on third language acquisition: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7(1), 2003.
- Kouridou, T., "A bidialectalism methodology of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elected Papers from the 18<sup>th</sup>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2009.
- Lado, R.,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Papapavlou, A. & Phili, A., "Childhood bidialectalism and metalinguistic awareness", *Selected Papers from the 18<sup>th</sup>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2009.
- Rahbar, S., "Bidialectalism and English word pronunciation: evidence from Iranian EFL learners",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 2013.
- Sanz, C., "Bilingual education enhances third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rom Catalonia", *Applied Psycholinguistics* 21, 2000.
- Yiakoumettia, A & Minab, M., "The influence of first-language bidialectism in

foreign-language classrooms: observations from Cyprus”,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24(3), 2011.

Abstract

## English Learners' Perceptions on the Influence of Bidialectalism in Jeju Island on their L2 English Acquisition

Shin, Chang-Won\*

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how EFL learners in Jeju Island, where both J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are used alternately, perceive the influence of their bidialectalism on their English learning and to explore specific ways to do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bidialectalism on L2 acquisition.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40 university students using a questionnaire about their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bidialectalism on their English learning, their learning experience of acquiring J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specific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they switch between J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and their perceived English proficienc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think their bidialectalis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L2 English learning, and they identified intonation, vocabulary, speaking, listening, and reading as specific language skills which can b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ir bidialectalism.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who perceive their bidialectalism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ir English learning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reported that Jeju dialect seems to interfere with their acquisition of intonation and speaking skill.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the subjects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bidialectalism and English learning to be, the higher they perceive their English proficiency to be. Most of the subjects also reported that their proficiency of standard Korean is equal to or higher than that of Jeju dialect. Finally,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specific ways to deal with the issue of bidialectalism as a facilitator of language learning were suggested.

Key Words : bidialectalism, English learning, Jeju dialect, standard Korean.

교신 : 신창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mail : scw72@naver.com)

논문투고일 2014. 08. 31.

심사완료일 2014. 10. 03.

계재확정일 2014. 10. 24.